



사순 제3주일(3월 12일)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요한 4:5-42)



야곱의 우물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이방인의 여인이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샘솟는 물을 주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죄를 씻어주는 생수이고, 끊임없이 샘솟는 하느님의 은총이며 성령이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3. 23.)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5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6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대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10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9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20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21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22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24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26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39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40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41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요한 4,7)

목마른 이웃에게 마실 물을 나누어 마시는가?

✝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요한 4,42)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물이라는 것, 그 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일정도가 고작입니다. 쓰나미 보셨죠? 물은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을 쓸어버립니다. 수영 못하시는 분들 자기 발이 닿지 못하는 깊이 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죽음과 맞닿아 있는 공포입니다. 물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형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지닌, 물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청합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말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의 유대인들에는 배신이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의심 가는 행동입니다. 어느 양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 민족에 대한 배척보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불목의 벽을 허물러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기를, 서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사순시기를 보내며 불목하며 화해하지 못하는 이웃과 그리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하느님과 화해해서 새로움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